

단죄받는 부끄러운 '극복의 대상'

12·12사태에 대한 법적 고찰

I
역사는 새로 쓰여져 왔다. 특히 그것이 '해곡·남조권' 역사인 경우,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로 다가온다.

최근 청와대가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로 사건으로 규정할 이후,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서 지목되고 있는, 두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80년 신군부세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벌써부터 '12·12사태'의 적·간적으로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이에 대한 자기 방어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우선, 쿠데타는 실패한 처분이 아니라 성공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쿠데타는 실패한 처분이 아니라 성공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I
우선, 쿠데타는 실패한 처분이 아니라 성공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쿠데타는 실패한 처분이 아니라 성공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쿠데타는 실패한 처분이 아니라 성공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쿠데타는 실패한 처분이 아니라 성공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II
정작은 현재 대법원, 대구·광주지정등에 집중된 '12·12사태' 관련 고발사건 4건을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앞으로 피의자에게 의한 고소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과 '12·12사태' 관련자들에게

정작은 현재 대법원, 대구·광주지정등에 집중된 '12·12사태' 관련 고발사건 4건을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앞으로 피의자에게 의한 고소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과 '12·12사태' 관련자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집단항명, 특수폭행죄 적용

'눈치보기식 수사' 우려, 왜곡된 역사 검증받아야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현장 취재
대통령 탄압을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또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한성대. 전직대통령을 경유할 수 없는 기자들의 '몸'인기. 광고가 학교육입장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단비리를 밝힌 기사를 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자가 선정한 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성대와 경원대는 또다시 방황중지를 당했다. 수많은 대학신문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변질중지'를 외치며 외침수련을 통해 분노를 느끼는 기자들이다. 그러나 마감한 한성대에서 차라리 불탄 마음을 식이며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은 것 보된다. (취재부)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로 불거졌을 뿐,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세워진 지금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은'을 아무리 세력화한 '80년 신군부'의 자질을 지키기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심악한 자의 구토



조기염
〈본보 취재부〉

모든 것과 화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나를 불태우고 있는 이 질문에 답하기를 주저하는 나는 몇간의 적이 놓인 세상에서 경악히 커져가며 생겨나는 모든 것, 만 천과 모든 것, 그러나 아직도 내 깊은 곳에서 토해내려는 것은, 이 세상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이 세상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이 세상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시대의 아픔·불의와 싸우는 치열한 삶
한지리도 흘러갈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럴 장소가 찾아볼 수 없다. 흘러가야 할 수 있는지도, 그들은 흘러갈 곳이 없다. 2? 도 왜인가. 짧은 시간, 그들은 늘 목말라 있다. 늘 목마름에 허덕인다. 목마름은 자는 허덕임에서도 물을 찾아 떠난다. 물을 찾아 떠난 자는 늘 떠돌아다닌다. 치열한 시대와 불의의 싸움에 매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토록 불화산인 세상 그 한복판, 물의 나라에 잠겨있는 자신을 본다. 치열한 물결치는 물을 찾는다. 해서 없지는 않은 것이다. 목마름에 그들은 물줄기를 찾아 떠난다. 물줄기는 그들의 치열함을 사라지지 않는다. 물을 찾았을 때, 그에게 물이 있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물이 되어 버린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물이 되어 버린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시대의 아픔·불의와 싸우는 치열한 삶
한지리도 흘러갈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럴 장소가 찾아볼 수 없다. 흘러가야 할 수 있는지도, 그들은 흘러갈 곳이 없다. 2? 도 왜인가. 짧은 시간, 그들은 늘 목말라 있다. 늘 목마름에 허덕인다. 목마름은 자는 허덕임에서도 물을 찾아 떠난다. 물을 찾아 떠난 자는 늘 떠돌아다닌다. 치열한 시대와 불의의 싸움에 매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토록 불화산인 세상 그 한복판, 물의 나라에 잠겨있는 자신을 본다. 치열한 물결치는 물을 찾는다. 해서 없지는 않은 것이다. 목마름에 그들은 물줄기를 찾아 떠난다. 물줄기는 그들의 치열함을 사라지지 않는다. 물을 찾았을 때, 그에게 물이 있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물이 되어 버린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시대의 아픔·불의와 싸우는 치열한 삶
한지리도 흘러갈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럴 장소가 찾아볼 수 없다. 흘러가야 할 수 있는지도, 그들은 흘러갈 곳이 없다. 2? 도 왜인가. 짧은 시간, 그들은 늘 목말라 있다. 늘 목마름에 허덕인다. 목마름은 자는 허덕임에서도 물을 찾아 떠난다. 물을 찾아 떠난 자는 늘 떠돌아다닌다. 치열한 시대와 불의의 싸움에 매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토록 불화산인 세상 그 한복판, 물의 나라에 잠겨있는 자신을 본다. 치열한 물결치는 물을 찾는다. 해서 없지는 않은 것이다. 목마름에 그들은 물줄기를 찾아 떠난다. 물줄기는 그들의 치열함을 사라지지 않는다. 물을 찾았을 때, 그에게 물이 있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물이 되어 버린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시대의 아픔·불의와 싸우는 치열한 삶
한지리도 흘러갈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럴 장소가 찾아볼 수 없다. 흘러가야 할 수 있는지도, 그들은 흘러갈 곳이 없다. 2? 도 왜인가. 짧은 시간, 그들은 늘 목말라 있다. 늘 목마름에 허덕인다. 목마름은 자는 허덕임에서도 물을 찾아 떠난다. 물을 찾아 떠난 자는 늘 떠돌아다닌다. 치열한 시대와 불의의 싸움에 매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토록 불화산인 세상 그 한복판, 물의 나라에 잠겨있는 자신을 본다. 치열한 물결치는 물을 찾는다. 해서 없지는 않은 것이다. 목마름에 그들은 물줄기를 찾아 떠난다. 물줄기는 그들의 치열함을 사라지지 않는다. 물을 찾았을 때, 그에게 물이 있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물이 되어 버린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시대의 아픔·불의와 싸우는 치열한 삶
한지리도 흘러갈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럴 장소가 찾아볼 수 없다. 흘러가야 할 수 있는지도, 그들은 흘러갈 곳이 없다. 2? 도 왜인가. 짧은 시간, 그들은 늘 목말라 있다. 늘 목마름에 허덕인다. 목마름은 자는 허덕임에서도 물을 찾아 떠난다. 물을 찾아 떠난 자는 늘 떠돌아다닌다. 치열한 시대와 불의의 싸움에 매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토록 불화산인 세상 그 한복판, 물의 나라에 잠겨있는 자신을 본다. 치열한 물결치는 물을 찾는다. 해서 없지는 않은 것이다. 목마름에 그들은 물줄기를 찾아 떠난다. 물줄기는 그들의 치열함을 사라지지 않는다. 물을 찾았을 때, 그에게 물이 있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물이 되어 버린 그들은 물이 되어 버렸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 움직이는 원인은 바로 '지구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뛰어넘어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진 일본을 흔히 '대서양 일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름은 21세기 — 대서양과 대서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집단' — 유엔이 발표한 '인간행복지수'는 바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약속의 현상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는

SAMSUNG

삼성전자

5
727월5년